

‘명품 다큐’ 스크린에서 만나다

‘아마존의 눈물’ 무삭제 오리지널 버전 등 광주극장 내달 9일까지 다양한 테마 소개

‘명품 다큐, 관객을 유혹하다.’
광주극장이 오는 6월 9일까지 ‘다큐 열전’을 갖는다. 다큐는 진지하고 무겁다는 선입견을 깨는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 화제의 인물을 만나다.
‘맨 온 와이어’는 1974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뉴욕 쌍둥이 빌딩 사이를 장대 하나 들고 횡단하는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이루어낸 필리페 페티의 도전을 그린 작품. 전세계 27개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선 라이프 선셋’은 ‘넓은 바다와 같이 넓고 큰 덕의 소유자인 스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달라이 라마 14세의 일상을 보여주는 다큐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러닝머신 하는 일상적인 모습부터 기도하는 모습 등 아무도 몰랐던 그의 하루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영화 ‘악마는 프로다를 입는다’에서 메릴 스트립

이 연기했던 역의 실제 모델인 보그 편집장 만나 위투어와 기자들이 보그 9월호를 제작해 가는 과정을 담은 스타일리쉬 리얼 다큐 ‘셀럽터 이슈’도 눈길을 끄는 영화다.

◇ 환경을 생각하다.
TV 방영 당시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아마존의 눈물’ 극장관이 관객들을 만난다. 300일간의 제작기간과 제작비 15억원의 들어간 이 작품의 미공개 영상을 포함, 무삭제 오리지널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더 코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은 1960년대 돌고래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미국 유명 텔레비전 시리즈인 ‘플리퍼’를 통해 돌고래 조련의 초석을 다졌던 리처드 오메리의 삶을 그리고 있다. 부와 명예를 모두 안겨줄 수 있는 돌고래 조련사의 길을 포기하고 돌고래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가 일본의 타이지(太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하고 잔인한 ‘돌고래 사냥’의 어

두운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을 담은 다큐다.

◇ 유쾌한 반란과 파격
음악 다큐 ‘반드시 크게 들을 것’은 보는 내내 발을 구르고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영화다.

인디 밴드 ‘타바코 주스’와 ‘켈러시 익스프레스’의 일상을 그린 이 영화는 마치 공연장에 온 듯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다.

사회에 쓴 소리를 하는 것도 이렇듯 하면 유쾌하다. ‘에스맨 프로젝트’는 유력한 조직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의 대변인을 사칭해 각종 국제회의에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뉘앙스를 캐발리는 악동같은 미국 시민운동단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 종교의 의미를 찾다.
많은 화제를 모았던 종교 다큐 역시 다시 관객들을 만난다. 카르투지오 수도사들의 일상을 담담히 담아낸 ‘위대한 침묵’과 15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회복’ 등이 기다리고 있다.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바다의 날’인 31일에는 ‘더코브’를 동반 1인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 ‘맨 온 와이어’ 포스터와 영화 ‘워낭소리’ OST 증명 행사를 가진다. <http://cafe.naver.com/cinmagwanguju>.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카

거꾸로 가는 광주 문진위

지난 2007년 3월 경남 김해 문화의 전당(문화의 전당·사장 김승업)은 국내 공연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그것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대형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무대에 올렸기 때문이다. 총 제작비 72억 원 중 김해공연에 들어간 제작비는 12억 원. 총 17차례 공연된 ‘미스 사이공’은 횡수뿐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고였다. 19대의 트레일러를 동원한 무대장치는 하역 작업만 하루 꼬박 걸렸고, 무대를 설치하는 데만도 일주일일이 걸렸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인구 45만 명의 중소도시에서 70%에 가까운 객석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성공신화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음’ 김해문화재단의 ‘열린 운영’이 있었다. 물론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출신인 김승업 사장의 공을 빼놓을 수 없으나 그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관’을 벌여주었기 때문이다. 김해문화재단은 지난 2005년 2월 김해시가 전액 출자한 전문예술법인, 산하에 김해문화의 전당, 클레이아크(Clayarch) 김해미술관, 김해한옥체험관을 거느린 김해시의 ‘문화컨트론타워’다.

최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광주문진위)가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시가 지난 27일 신임 문진위원 13명을 위촉하고 31일 신임위원장을 선출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문화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서두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연임시키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3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역문화정책 전문가와 민예총 인사들을 거의 배제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수도 광주의 핵심기부로 다양하고 균형잡힌 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문진위(문진위)를 보니 지난 2004년 12월 ‘전국 최초의 민간합의기구로 출범한다.’라는 출사표가 무색할 뿐이다. 문진위는 관 조직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이 참여하는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시법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됐다. 지난 2기의 경우 예총과 민예총 성향의 전문가들이 고루 들어가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진위는 여전히 시의 문예진흥기금을 배분하는 제한된 역할에 머물러 왔다. 지역의 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위원선임에서부터 사업추진 등 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3기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 역시 시의 입김이 얼마나 크게 작용한 지 잘 말해준다.

특히 문예기금의 경우 시 출연금 47억 원이 전부다. 이 때문에 문화계 일각에서는 지난 3월 100억 기금모금 목표로 발족한 광주국제공연예술제단과 통합시켜 문화수도 광주를 이끌어갈 ‘서령탑’으로 역할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차기 시장이 큰 틀에서 문진위의 위상제고 등 문화정책을 그릴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넘겨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전국 최초로 설립된 광주문진위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생명 나무에 깃든 ‘영적인 아우라’

이정록 사진전 내달 2일까지 신세계갤러리

사진작가 이정록씨 개인전이 6월2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이씨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분위기를 신화와 결합하는 형식으로 인간의 삶을 고양하고 치유해내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열어 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역시 인간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신화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작품화했다. 특히 ‘Tree of Life’ 시리즈는 태초 이래로 존재해왔지만 볼 수는 없었던 생명의 실체 즉 영적인 아우라에 휩싸여 있는 신비로운 생명나무를 바라보게 한다.

영적인 이야기와 이미지들을 화면 가득 내밀하게 수 놓은 방식은 이미 이전의 신화적 풍경, 사적, 성소 등의 작품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생명나무’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이긴 해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공된 이미지는 아니다. 빛이라는 자연재료와 카메라라는 인공재료 그리고 약간의 설치물을 이용해 수작업을 통해서 만든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간 이미지들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된 작품들은 이전에 비해 소박한 느낌이 강해졌다. 이는 이씨가 생명나무에 깃들여 있는 영적인 아우라를 강조하기 위해 배경을 제거한 채 오로지 나무



‘Tree of Life 2-6’

와 빛의 번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광주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 전공, 로체스터공과대학(R.I.T) 영상예술대학원 순수사진을 전공했다. 지금까지 7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국내외 단체전에 다수 참여했다. 현재 광주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무지크 바움’ 화요일 예술무대에

내일 광주문예회관

피아노 사중주단 ‘무지크 바움(사진)’이 광주문예회관이 기획한 화요일 예술무대에 선다. 6월 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구재항(피아노·호선대 교수), 신정문(비올라·광주시향 수석), 박다연(바이올린·광주시향 상임단원), 이지현(첼로·스콜피아 오케스트라 수석)씨로 구성된 ‘무지크 바

움’은 ‘음악나무’라는 뜻으로 지난 2004년 구성 후 매년 새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아다지오와 론도 콘체르탄토 F장조’, 체코 작곡가인 보흐슬라브 마르티누의 ‘첫번째 피아노 4중주곡’, 프랑스 작곡가 에르네스트 쇼송의 ‘피아노 4중주 A장조’다.

전석 1만원, 문의 062-510-9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EGABOX

1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최고급관
2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3관	로빈후드 (15세)	
4관	꿈은 이루어진다 (15세)	
5관	드래곤길들이기 3D(자막)더빙(전세)	
6관	내 남자의 순이 (15세)	
7관	내 짝패같은 애인 (15세)/시 (15세)	
8관	나이트메어 (18세)/아이언맨2 (12세)/시 (15세)	
9관	하녀 (18세)	
10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 호남주치던원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전설의 대재앙이 선택한 단 하나의 영혼

www.megabox.co.kr

컬롬버스시네마

1관	내 짝패같은 애인 (15세)/시 (15세)
2관	내 남자의 순이 (15세)
3관	아이언맨2 (12세)/구르물 버서닝 달치형 (15세)
4관	로빈후드 (15세)
5관	드래곤길들이기 3D(전세)/하녀 (18세)
6관	나이트메어 (18세)
7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8관	꿈은 이루어진다 (15세)
9관	하녀 (18세)
10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1588-7941 상담원현관 방방-(1번 or 2번)→0번

CINUS 색깔있는 영화산책 씨너스

1관	로빈후드 (15세)
2관	하녀 (18세)
3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4관	꿈은 이루어진다 (15세)
5관	내 짝패같은 애인 (15세)
6관	나이트메어 (18세)
7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8관	아이언맨2 (12세)
9관	드래곤길들이기 3D(자막)더빙(전세)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Primus 영화보는 즐거움이 있는 곳 제일극장

1관	하녀 (18세)
2관	아이언맨2 (12세)
3관	내 짝패같은 애인 (15세)
4관	나이트메어 (18세)
5관	로빈후드 (15세)
6관	드래곤길들이기 (3D)전세
7관	구르물 버서닝 달치형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서무소 옆 효내터유치원 -다. 입원권 구매 교외에 한함)

〈글래디에이터〉의 10년 신화가 깨진다!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kcinema.co.kr

종장문 3가 ARS 전화예매 ☎ 227-1960